

어농성지 신유박해辛酉迫害 순교복자 14위



주문모 周文謨
야고보 1752~1801



정광수 鄭光受
바르나바 ~1802



조용삼 趙宗相
베드로 ~1801



원경도 元景道
요한 1773~1801



홍필주 洪弼周
필립보 1774~1801



윤유오 尹有五
야고보 1752~1801



윤점혜 尹占惠
아가타 ~1801



최창주 崔昌周
마르첼리노 1749~1801



심아기 沈阿只
바르바라 1783~1801



한덕운 韓德運
토마스 1752~1802



윤운혜 尹雲惠
루치아 ~1801



강완숙 姜完淑
골롬바 1761~1801



이중배 李中培
마르티노 ~1801



정순매 鄭順每
바르바라 1777~1801



후원 및 봉헌 참여 안내

농협	183-01-253441
예금주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 어농성지

미사 안내

- **미사시간** 주일, 평일 오전 11시
미사 전후로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 **휴무일** 매주 월요일
-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매주 금요일 : 연미사
매주 토요일 : 생미사

문의 및 연락

대표번호	031-636-4061
이메일	onong21@hanmail.net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로 62번길 148



어농성지의 더 많은 이야기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어머니 품 속 같은
청소년·청년을 위한 신앙의 못자리

어농성지

於農聖地

- 천주교 수원교구 청소년·청년 성지 -

어농성지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 사제를 모시기 위해

목숨 바쳐 순교하신 을묘박해 세 분의 순교자들,

그리고 '주문모'(야고보) 신부님의 사목을 도와 피로 신앙을

증거하신 신유박해 14위의 순교자들을 현양하는 곳입니다.

청소년·청년 성지로 선포된 이후

젊은이들을 위한 성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농성지 을묘박해乙卯迫害 순교복자 3위



윤유일 尹有一 바오로 1760~1795

“주님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천 번을 죽겠습니다.”

여주 금사면 금사2리에서 태어났다. 권철신(암브로시오)의 문하에서 천주교 신앙을 접한 후 권일신(F.하비에르)에게 구베아 주교를 만나러 두 번이나 북경에 밀사로 다녀왔다. 1794년 말 중국인 주문모(야고보) 신부를 조선에 잠입시키는데 성공, 이 일로 체포되어 1795년 6월 28 일에 한양 포도청에서 매를 맞고 35세에 순교하였다.



최인길 崔仁吉 마티아 1765-1795

“참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기보다는 차라리 천 번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한양 역관 집안에서 태어났다. “신부님을 위해 순교하여도 좋다”고 말하며 주문모 신부님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고 역관이었던 점을 이용하여 스스로 중국 신부로 위장하여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하여 스스로 체포되어 좌포도청 터(현 종로구 단성사 일대)에서 30세에 순교하였다.



지 황 池瓚 사바 1767-1795

한양의 궁중 악사 집안에서 태어났다. 성직자 영입 운동의 밀사로, 박해자의 눈을 피해 주문모 신부를 국내에 안내하였다. 지독한 매질 속에서도 주 신부의 행적을 일체 말하지 않고 곳곳하게 신앙만을 고백했다. 결국 복자는 29세의 나이로 순교하였다.

순교자 묘역



“천만번 죽을지라도 저 십자 형틀에 묶이신 분을 모독할 수 없소.”
- 순교 직전 윤유일의 마지막 신앙고백

계절 따라 걷는 순례길



어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논성지

순례터 안내도



성당 제대 십자가



“다 이루었다.”(요한 19.30 공동 번역본)

라는 성경구절을 표현한 십자가.

숨을 거두시며 고개를 떨구시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구원의 은총을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빛과 빛살 모양의 조각으로
하나의 소나무 통나무를 깎아 표현하였습니다.